

또 느닷없이 사라질 선거구?...속타는 입지자 혼란스런 유권자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어떻게



<2>벼락치기 획정 되풀이되나

선거제 개혁안이 오는 11월 27일째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만 키우고 있다. 매년 선거일 50여일 전이나 선거구가 확정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출마예정자와 유권자들만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광주·전남의 일부 선거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50여 일 전 선거구가 확정됐던 과거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출마 예정자는 "과거 전남지역 한 국회의원 출마자는 선거 준비를 다하고도 선거일 50여 일 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자신이 유리한 지역이 선거구에서 제외돼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법 개혁안 통과에 따른 선거구 개편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유권자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제 개혁안 11월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 인구 줄어든 광주·전남, 주권 왜곡 기형적 선거구 나올수도

와 출마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일 코앞 선거구 획정'에서 오는 혼란뿐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언제든 선거구가 사라지거나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 앞서 지난 2016년 인구가 줄어든 동구·남구 선거구 대신, 행정구역 개편을 무시한 채 최소인구수를 맞춘 뒤 동남갑과 동남을로 다시 선거구를 나누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동남갑 선거구는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등 기존 남구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동남을은 기존 동구 일원에,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등이 편입됐다.

이 때문에 동남을 선거구 중 행정동이 남구인 양림동 등지는 '행정은 남구 관할이지만 의정은 동구의회'에서 진행돼 지방자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불균형한 구조가 탄생했다.

동구의회가 이들 남구지역 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정책을 만들더라도 동구청은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없고, 남구청이 이같은 조례와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불균형한 선거구 탓에 정치권의

혼선도 크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이같은 선거제 개혁안을 적용하면 5개 이상의 지자체가 한 선거구로 묶이는 '거대 선거구'가 나타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활 권역이 다른 여러 지자체가 한 선거구로 묶이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힘들고, 각 지역의 이해관계도 달라 원활한 예산 지원 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

또 유권자 수가 많은 지자체 출신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특정 지역이 의석을 독식할 우려도 낳고 있다. 실제, 지난 17대 이후 한 선거구로 묶인 나주와 화순의 경우에는 지난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순에 비해 인구가 많은 나주 출신이거나 나주를 정치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독식했다.

사실상 다수 지역 동일 선거구에서는 각 지역의 유권자 수에 따라 국회의원의 얼굴이 바뀌고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동구의회 한 구의원은 "남구 지역 구의원이 동구의회에서 제대로 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는데 무슨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매년 이 지역은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뿐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1407차 수요일시위 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린 제140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일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일본대사관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말도 검찰개혁 촛불집회...“200만~300만 모일 것”

오늘 광화문에선 보수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토요일인 5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서울 서초동에서 다시 대규모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천절인 3일 도심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2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조 장관 지지층이 중심이 된 이 단체가 지난달 21일, 2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여는 주말 집회다.

지난주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200만명이 모였고 이번에는 200만~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 시민연대가 경찰에 낸 집회 신고 인원도 지난주

8000명에서 이번 주 10만명으로 늘었다. 집회 허가 때문에 실제 예상 참가 인원보다 줄어났으나 지난주보다는 집회 규모가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했다. 주최 측은 지난주 집회 인원 논란으로 오히려 참가자가 늘 것으로 분석한다.

자유한국당 등은 지난주 집회 개최지 면적을 고려할 때 집회 참가자는 5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주최 측이 인원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저녁 인근에서 열린 서초구 서리풀 축제를 폐막행사 참가자들도 집회 인원수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검찰개혁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에도 부산, 대구, 광주, 충주 등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단체로 상경하려는 참가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개혁을 가로막는 적폐라

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개천절인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표방 단체들로 구성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조 장관 반대 집회를 연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대한문, 서울역 등에서 오후 1시까지 개별대회를 마친 뒤 연합 집회를 열고 청와대, 세종로, 사직로 등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수사 개입을 통해 범죄주의와 헌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집회일인 3일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최 측에서는 100만~15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부터는 종로구 대교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 연합집회가 열린다. /연합뉴스

엷힌 아이가 더 안도감 크게 느낀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83) 어깨 너머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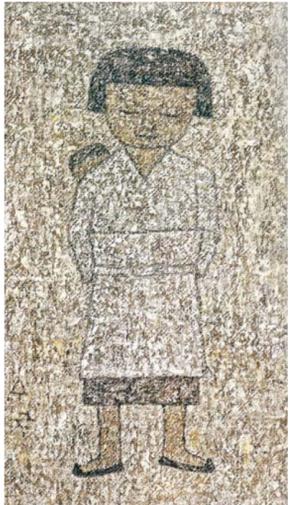
해마다 가을이 되면 유독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생각난다. 특히 추석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더욱 그렇다. 유난히도 엄마 등에 얹혀 병원을 갔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엄마가 그리웠다. 몸이 약했던 어린 날, 꼭 한방중이던 고열이 나곤 했었다. 그때마다 엄마는 정신없이 딸아이를 업고 밤을 달려 병원을 찾아갔는데 온 동네 개들이 경경 짖어대던 장면과 엄마의 파스한 등이 지금도 가슴에 가득 차오른다. 그 사랑의 유전자로 딸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주 업어주려 했었던 것 같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기와 외출할 때 등에 업는 대신 아기띠나 힙시트 캐리어 등으로 아기가 앞을 보게 안는다. 엄마

의 두 팔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아기는 세상의 모든 풍경과 바람을 엄마보다 먼저 마주하기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한다. 아기는 등에 얹혀 엄마아빠의 어깨 너머로 살짝살짝 보이는 세상을 마주할 때 안도감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육아도 옛날 방식이 좋았던 것 같긴 하다.

서양에서는 아기를 업기보다 안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수없이 묘사된 성모 자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어린 그리스도를 안고 있기는 해도 업고 있는 성모가 없으니 말이다. 우리의 경우 바쁜 엄마를 대신해 어린 아이가 아기를 업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림에서도 아기 업어 주는 모습은 고금을 통해 자주 만날 수 있다.

아기를 업는 소녀 혹은 엄마의 모습을 즐겨 그리던 화가로는 '한국의 토속적인 정서의 이상상'을 보여주었던 박수근작가(1914~1965)가 으뜸이다. 박수근작가의 '아기 보는 소녀'(1963년 작)는 누나 아니면 언니가 동생을 업고 어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소녀의 어깨 너머로 세상을 내다보는 것 같은 아기의 반



박수근 작 '아기 보는 소녀'

쯤 보인 얼굴이 사랑스럽다. 소녀의 등에 숨어 거센 세상의 풍파도 두렵지 않은 듯한 아기의 안도감이 전해진다. 회백색 계열의 색조와 화강암이 연상되는 오토도톨한 작가 특유의 질감이 아기 보는 소녀의 애뜻한 서정을 더해준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 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당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슬라에너지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철제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